

현대 실내공간의 중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entrality of the Contemporary Interior Space

선승보* / Seo, Soung-Bo
이정욱** / Lee, Jeong-Wook

Abstract

This study aims from being meaning of centrality to possibility of space composition in the Contemporary Interior Space os forming of center and way of being.

There it is studied analysed architect's work on character of certrality. This study mentiones not as analysis of location and perception aspect on uabanism but as various forming and changing in the contemporary interior space composition. it is defined as centrality in architecture space which is base in the course of congiting and organizing and is core space in forming area. It is meaned not as Euclidean plan but as three demeasional vector space in space express architectural space exists except for perception of human and takes center and direction in perculiarly.

키워드 : 중심성, 실존, 실내공간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 실내공간에서 나타나는 중심과,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공간의 구성상 특성들을 연구함으로써 중심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와 근대이후 부정되어온 중심이 갖는 의의를 재조명해 보고 그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중심성을 형태상의 기하학적인 중심으로만 파악할 때 이는 분명 반성의 대상이 된다. 중심을 단순히 평면도 상의 기하학적인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는 건축공간을 인간의 존재가 제외된 형태상의 문제로만 파악하려는 태도와도 관련된다. 노베르그 슐츠(C. N. Schulz)는 1971년 그의 저서 『실존, 공간, 건축』에서 그동안의 공간 연구에 대한 평가로, “공간 개념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추상적인 기하학을 논함으로써 인간을 제외시키거나, 혹은 인간을 논의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공간과 건축을 인상과 감정, 그리고 효과에 대한 연구로 환원시켰다”고 주장하고 ‘실존적 공간’ 개념-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로서의 공간은 잊혀져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바우하우스 이후의 건축공간들 중에서 중심성을 내포한 공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논의에 사용될 중심의 개념이 단순히 기하학적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중심의 정의는 실존적 공간의 중요성을 지적한 노베르그 슐츠의 개념과 루돌프 아른하임의 역동적 중심에 관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건축공간에서의 중심성을 단일중심, 다중심, 역동적중심의 공간으로 나누어 분석하려한다.

2. 중심성의 정의와 일반적 고찰

중심(center)의 사전적 의미는 원, 구, 정사각형의 중심 또는 회전 중심점, 축심, core의 의미로 사용되고, 중심성(centrality)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구심성, 집중성을 의미한다.¹⁾ 이는 중심(center)은 물리적 중심인데 반하여 중심성(centrality)은 중심과 주변의 상호 관계에 의해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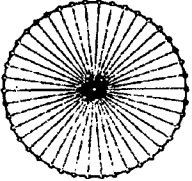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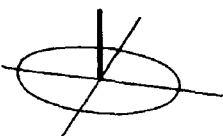
중심성의 의미로는 ‘중심’, ‘장소’, ‘내부’, ‘수직적인 것’, ‘폐합된

* 정회원, 경원대학교 환경정보대학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이사,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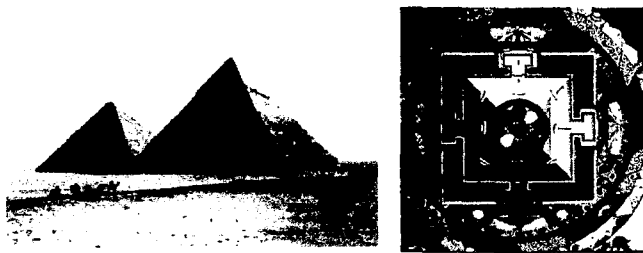
1) 英韓大辭典, YBM 시사영어사

것, '돌짜구', '참조점', '세계축', '동선의 결절점', '전체의 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장소'²⁾ 등으로 논할 수 있다. 상징적 의미에서 중심은 의미가 부여된 양과적 집적체로서 보여지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들 수 있으며, 중심부분 뿐만 아니라 주변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구축되는 하나의 형이상학적 체계로 볼 수 있다. mandala³⁾의 형태는 대체로 '圓' 혹은 '정방형'으로서 사실상 圓과 방형 중 어느 것이 먼저 나온 것인가는 조형 이론상 여러 번 거론되어 왔지만 원시시대부터 진행된 발달 과정을 보면 원이 앞섰고 동양의 우주관도 '원'은 하늘을 상징하고 '정방형'은 땅을 상징한다고 해서 '원'이 우선된 것으로 간주된다. mandala의 보편 타당성은 중심에 있다. 이처럼 mandala가 의미하는 중심의 상징성은 인간을 건축공간속의 실존하는 장소에 관련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중심화된 장소의 유형	장소와 인간이 갖는 방향성
	

<그림 3> 중심과 장소

한 솔츠는 구심화된 장소에서 수직의 축을 두어 인간의 자연정복 능력에 관하여 방향성을 갖는 중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중심화된 장소의 개념과 그 장소에서 자연을 정복하며 서있는 인간의 개념은 솔츠가 보여준 그림에서 자세히 표현된다. 따라서 실존적 중심은 인간이 실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중심을 말한다. "이 집의 중심은 어디예요? 중심은 공간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실제 집의 중심이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는 것일 게다. 집에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 물론 가족은 각기 자신의 공간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같이 모일 뿐 아니라 언제나 '가족'이 연상되는, 그런 공간이 마음의 상징으로 필요하다."⁶⁾ 예를 들어 집이 인간의 중심이라면, 그것은 그가 그곳에 있는지 혹은 떠나 있는지 간에 그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그가 그 집에 살기 전에 또는 그보다 우세한 다른 중심을 갖을 때면 그 집은 중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림 1> 피라미드

<그림 2> 만다라

2.1. 실존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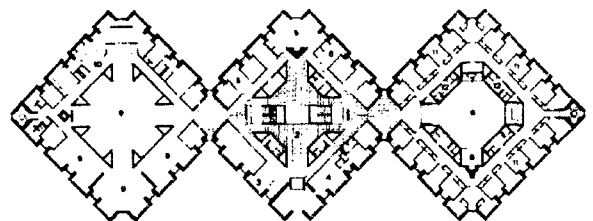
공간은 체험하는 인간이라는 하나의 중심점을 가지고 있고,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한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유한하며, 불균질하고 주관적으로 결정되고 체험된다. 실존적 중심과 방향은 보는 자의 관점과 그 이동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삼는 건축적 공간의 방향이 인체의 움직임과 함께 변화한다⁴⁾는 것이다.

실존적 중심이란 장소 혹은 결절점(node)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공간은 "주체를 축으로 하여 중심화"되어 있다. 모든 중심은 "행위의 장소" 즉 특별한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이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이다. 장소는 실제의 의미작용을 갖는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목적 혹은 초점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정립시키고 환경을 소유하게 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장소는 그것을 둘러싼 외부와는 대조적으로 내부로써 체험되는 것이며 크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연히 중심화 된 형태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심화 된 본체란 "구심성"을 의미한다.⁵⁾ 또

3. 실내공간의 중심성

3.1. 단일중심의 공간구성

(1) 4방향에 의한 대칭성



<그림 4> 브린모어 기숙사

Louis I. Khan의 브린 모어 기숙사는 세 개의 정방형이 서로 모서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 정방형은 중앙에 커다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식당(서측), 입구 홀(중앙), 거실(동측)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 공간은 모두 각각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들은 하나의 결절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결절점들은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

2)C. N. Schulz,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p.33

3) 「석도열의만다라」, 만다라는 티베트 불교미술을 대표한다. 밀교의 행자가 명상을 통하여 우주의 핵심, 즉 대일여래의 큰 생명력에 합일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안내도이다.

4)김광현, 건축지각의 분석방법, 건축, 1987. 10, p.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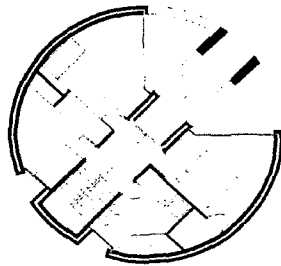
5)C. N. Schulz,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7, pp.34-38

6)김진애, 이 집은 누구인가, 한길사, 2000, p.92.

으며 중앙의 보이지 않는 축을 지향하면서 구심성을 나타낸다.

(2) 원에 의한 대칭성

마리오 보타가 말하는 원초적 이미지란 원 반원 형태와 같이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를 통해 생성되는 이미지를 뜻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설계에 있어서 근본적 개념에 해당한다. 보타의 로손 주택은 평면상 정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 공간은 원의 중심에서 각각의 네 방향들이 뻗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축으로 인해 공간은 서로 대칭적으로 분리되고 있다. 또한 입구 부분의 사잇공간은 원형의 중심부분 입구쪽으로 향하게 유도하는 시각적 중심을 만들어낸다. 이곳에서도 원형의 공간은 구심성을 갖고 있으며 명확한 방향성의 제시는 공간의 이용자로 하여금 선택의 용이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부여해준다.



<그림 5> 로손 주택 평면도

3.2. 다중심의 공간구성

(1) 영역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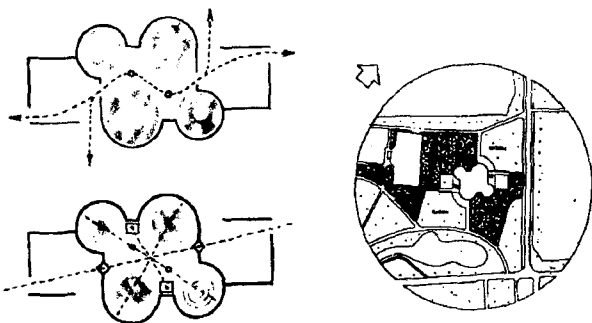
영역의 확장으로 나타나는 전이공간은 외부에서 형성되는데, 내/외부공간의 상호 관입현상으로 발생한다. 외부공간의 관계에 있어 두 개의 공간 혹은 다수의 공간이 결합될 경우에 용도나 기능에 따라 전이공간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이공간은 두 개의 공간에 새로운 중심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 6> 상호작용

(2) 상호작용에 의한 중심성구현

반 아이크는 설계초기부터 교회가 하나의 중심을 갖는 대신에 많은 중심을 가져야되고 그것들이 명확한 특색을 갖춘 하나의 공간에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 건물에서 이러한 다중심적인 사상은 4개의 원이 이루는 복잡한 대각선에 의해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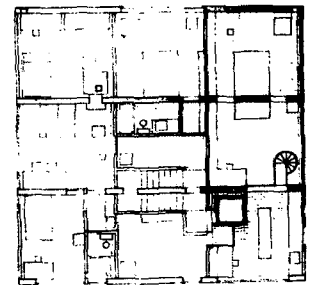


<그림 7> Aldo Van Eyck Protestant Church Project

취되었으며 4개의 원중 하나는 원형극장식으로 되어 평일의 소 집회, 세례식, 결혼식, 성가대 등에 사용되고 세 개의 원은 용도가 결정되지 않았다. 위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원형의 공간들은 서로 대칭적으로 놓여져 있으며 사선의 축들은 각각의 원형공간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다. 이것은 서로의 중심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며 또 다른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3) 축성(軸性)의 표현

존 헤이덕의 "세븐하우스 (Seven Houses 1963)"는 자세한 세목에 있어 헤이덕이 기본모듈로서 세 가지씩(3by3)의 격자형을 가진 거주용 건물(pavilion)의 주제를 변경함으로써 미스로부터 받은 주제들의 미묘하고 세련됨에 이르게 했던 공간으로써 그리드에 의한 정확한 공간의 분할은 각각의 축선들이 중심을 형성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림 8> John Hejduk House 7, 1963

3.3. 역동적 중심의 공간구성

(1) 동선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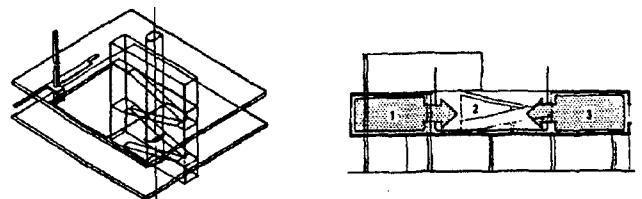
① 방향성

중심은 방향성을 낳고, 방향성은 중심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또한 움직임은 방향성을 내포하고, 방향성은 움직임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은 방향축으로 고정되고, 방향축은 대칭성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② 위계성

사보아 주택은 르 꼬르뷔제가 주장한 현대 건축의 5원칙-지주(Piloti), 옥상정원(Le Toit Terrasse), 자유로운 평면(Le Plan Libre), 가로로 긴창, 자유로운 입면-으로 구성되는 조형 원칙에 충실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빌라 사보아의 진입은 외측의 원기둥의 열과 들어간 부분 사이



<그림 9> Villa Savoye

에 있는 필로티 형태의 공간에 의해 이루어 진다. 이 필로티 형태의 공간에서 위요감의 차에 의해 외부에서 내부로의 위계적 질서가 형성되며, 각 층 또한 수직적으로 위계가 이루어진다.

③ 통로

통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하나의 공간을 향해 축을 계속적으로

진행시켰을 경우 중심은 강력한 목표로써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통로의 위계나 미로성에 의한 변화는 공간을 역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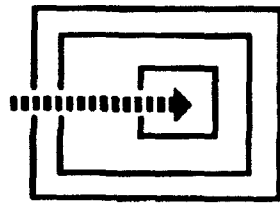
(2) 그리드에 의한 분절

① 사선에 의한 공간 구성

수직·수평의 직교 체계는 공간 지각의 기본체계를 구성한다. 건축에서의 직교체계의 활용은 구조적, 경제적인 면 이외에 디자인의 균형과 안정을 표현하며 건축공간 구성에서 사선은 역동성과 긴장감을 지니고 강한 방향성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구성방법이다. 사선의 활용은 직교체계에 의한 정형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사선의 긴장감에 의한 상승감의 유발과 다양한 변화감을 경험하게 된다.

② 다층적 공간 구성

다층적인 공간구성은 내부공간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는데, 건축가는 이러한 일련의 계층구조를 통하여서 공간을 프로그램하여, 원하는 특정효과가 건축공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림 10> 다층적 구성

다층적인 공간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내부에 중심이 있고 이 중심의 주변으로 공간이 다층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공간의 위계는 명확하며, 중심성은 강조된다. 그러나 한편 다층적인 공간구성은 오히려 중심성을 와해시키며 내부공간을 개방적이고 중성적으로 만든다. 한 건물에 다양한 층위의 형태적, 공간적 구성원리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 또 이들 각 층위의 공간들이 서로 위계적이거나 종속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대등하며, 병렬적으로 연결될 때, 내부에서는 상호 이질적인 체계들간의 긴장감이 유발되며 이러한 '선택적 긴장감'을 통해 공간의 개방적 성격은 더욱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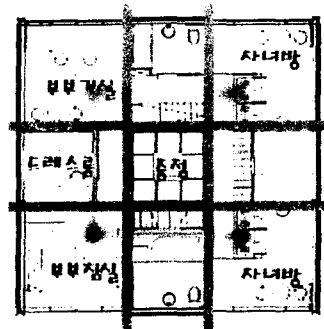
4. 공간 유형별 중심성 분석

4.1. 주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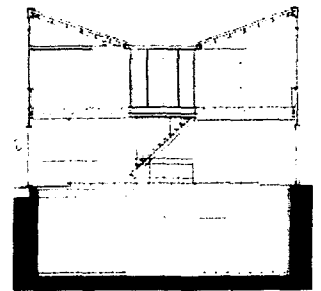
근대운동이 추구하던 주택공간의 이념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어떤 종류의 완성을 보면 거기에는 그에 대한 반동이 시작된다. 팔라디오의 절대적인 중심성이 라이트나 데 스틸(De Stijl) 계열의 건축가, 또는 르 꼬르뷔제에 의해 그 반동이 시작되었다. 미스의 주택이 갖는 무미건조하고 중심이 없는 균질적인 공간에 대한 측면의 반동으로 복잡하고, 풍토성을 나타내거나, 역사적 양식을 인용, 조작, 변형하는 절충적인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주택 중심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반동의 방법에는 다시 고전적인 절대중심으로의 회귀가 시작되거나 자신들의 풍토와 전통에 맞춰 나름대로의 중심을 추구하려는 경향들이 출현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정일교의 '멀티박스 하우스'로 주택의 중앙에 개방된 중정이 자리하고 모든 공간이 이를 완전히 둘러싸는 공간



<그림 11> 멀티박스하우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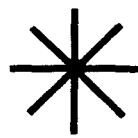
<그림 12> 멀티박스하우스 단면도

구성방식으로 이를 중심으로 공간이 배열된다. 주택의 중심에 중정이 자리하는 경우는 채광과 통풍의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고 동시에 프라이버시의 측면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공간구성방식을 통한 중심성의 획득은 동양문화권의 주택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다.

4.2. 사무공간

현대의 사무공간은 빠른 속도로 변화가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더불어 공간의 구성도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게 만들고 있다. 기존의 사무공간에서 볼 수 있었던 집단화된 작업의 모습이 이제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분업화되고 있다. 업무공간은 가능한 질서있게 계획되어야 하지만 독립사무실(cellular)과 개방형(open plan) 업무공간의 경계는 완화되고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팀 공간이 디자인 유니트로서의 개인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을 대체함에 따른 변화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성을 최대한 만족하면서 공간계획을 하는 것이 그 조직의 구조를 건축구조 안에 맞추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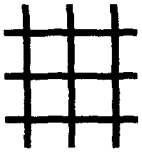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공간의 구성은 조직의 특성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중심성도 마찬가지로 변화감을 볼 수 있다.



<그림 13> 업무공간형태1

(1)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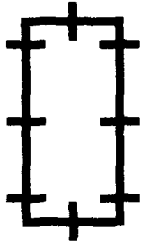
중앙 집중화, 좋은 방향성, 중앙에서는 어디나 접근이 용이하나 주변은 그렇지 못하다. 통제가 쉽다. 단일중심의 공간구성.



(2) Grid

분산화, 종지 않은 방향성, 어디나 접근하기 쉬우나 통제나 보완이 힘들다. 회의 장소가 다양하다. 다중심의 공간구성

<그림 14>
업무공간형태 2



(3) Ring

주변적, 합리적 다양성, 접근하기가 어디서나 대체로 쉽다. 통제나 보완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원심적인 공간구성.

<그림 15>
업무공간형태 3

4.3. 상업공간

상업공간의 공간구성은 매우 다양한 조건들로 인해 중심성을 나타낸다. 공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인식을 시키고 또한 고객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의 극대화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상업공간은 공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중심성을 부여할 수 있다.

4.4. 종교공간



<그림 16> 일 레텐토레 성당의 내부

교회건축은 본질적인 요소인 nave와 Chancel(至聖所)의 구성에 있다. 초기의 그리스도교 시대의 성체를 둘러싼 공간인 성소는 nave를 구성하는 회중석으로 의미가 발전된 것이다. 신에 대한 방향성은 서에서 東으로 향하게끔 축을 잡았다. 바실리카의 양끝의 apse중 하나가 없어짐과 동시에 입구가 장변으로 없어진 apse쪽의 단변으로 옮겨졌다. 남은 하나의 apse는 주교의 자리가 되었고, 이 앞에 제단(altar)이 놓이게 되어 Chancel을 형성하는 축의 방향성이 부여된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일 레텐토레 성당의 내부로, 하나의 강한 축성으로 인해 제단까지 도달하는 공간은 엄숙하고 신성하게 느껴지고 제단은 하나의 목표점으로 인식하게된다. 즉 축의 끝 부

분에는 강한 중심성을 가지게되며 신을 향한 경건하고 엄숙함이 절정을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공간의 중심은 기하학적으로 정의될 수 없지만 실존적 측면에서 강한 역동성을 느끼게 하는 중심성을 내포한다.

5. 결론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심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과거나 현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현대의 탈 중심적인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로서는 그러한 중심성의 의미가 형태적인 구성으로서가 아닌 실존적인 개념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즉, 중심은 어느 하나의 특정한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개체들이 중심성을 가지고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대중을 위한 공공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개인과 개인 대중과 대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의 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중심성의 부여는 위에서 언급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1. 단일중심- 선택의 명확성, 공간의 안정감, 공공의 커뮤니케이션 제공
2. 다중심- 개인의 프라이버시 확보, 공간의 효율적 배분, 다양한 공간의 변화
3. 역동적 중심- 공간의 생동감부여, 특정공간의 강조, 랜드마크의 효과

참고문헌

1. Rudolf Arnheim, 중심의 힘, 정용도 역, 도서출판 눈빛, 1995.
2. K. C. Bloomer/C. W. Moore, 身體·知覺 그리고 建築, 이호진·김선수 역, 기문당, 1999.
3. C. N. Schulz, 實存·空間·建築,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7.
4. Francis Strauven, Aldo Van Eyck - The Space of Relativity, Architecture & Natura Press, 1998.
5.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 도서출판 대운, 1995.
6. 강상훈, 루이스 칸 건축에 나타나는 '중심'에 의한 공간구조의 특성,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론 1997. 12.
7. 김진애, 이 집은 누구인가?, 한길사, 2000.
8. 강인보, Christian Norberg-Schulz의 현상학적 건축이론에 근거한 실존적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석론 1998. 12.
9. 이성미, 업무활동과 공간계획, Interiors, 가인, 1998, 12.